

화순군, 한국조폐공사와 손잡고 '카드형 상품권 발행'

결제 수단 다양화로 화순사랑상품권 활성화 화순군수·한국조폐공사 사장 등 10여명 참석

화순군이 한국조폐공사와 손잡고 카드형 화순사랑상품권을 제작할 계획이다. 화순군과 한국조폐공사는 26일 오후 군청 소회의실에서 협약식을 열고 카드 상품권 발행에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구종곤 화순군수와 조용만 한국조

폐공사 사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화순군과 조폐공사는 화순사랑카드(카드형 화순사랑상품권) 제작, 화순사랑카드 신뢰성과 보안성 제고를 위한 서비스 개선, 화순사랑카드 활성화를 위한 신기술 적용과 홍보 등에 협력하

로 했다. 화순군은 종이 화순사랑상품권에 이어 카드형 화순사랑상품권을 선보여 화순사랑상품권 활성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카드형 상품권은 지역의 가맹점 어디서나 일반 체크카드처럼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카드형 상품권이 도입되면, 이용자는 판매대행 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스마트폰 앱(APP)을 통해 카드 발급과 충전, 사용 내역과 잔액을 확인할 수 있다.

가맹점은 종이 상품권보다 카드형 상품권을 선호하는 젊은 층의 고객 유입, 결제 수단 다양화 등으로 매출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카드 상품권 도입으로 직장인, 청년층의 화순사랑상품권 이용이 증가할 것"이라며 "화순사랑상품권 유통을 활성화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화순=박순철 기자



담양군, 행정공백 예방을 위한 재택근무 적극 시행

코로나19 상황 안정까지...부서별 현원의 1/3

담양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행정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이달 말부터 재택근무를 확대 운영한다. 최근 광주·전남지역에 확진자가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청정지역을 유지했던 담양에서도 첫 확

진자가 나오며 따라 지역 감염 확산 방지와 비상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서별 현원의 3분의 1로 강화했다. 재택근무는 읍·면 포함 분청 전 부서를 대상으로 하며, 이달 31일부터 코로나19가 안정될 때까지 유지된다. 다만, 지난 8.7.~8.8. 집중호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만큼 피해 복구 등 현장 대민업무를 추진하는 부서는 부서장 책임하에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한편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행정 마비를 예방하기 위해 사무실 내 마스크 상시 착용, 전 사무실 소독 등 예방 조치를 취하고 있다. 사무실 밀집도 완화를 위한 시차출근제 및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각종 유연근무제를 적극 운영하고 있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재택근무 중에도 업무 공백을 최소화 해 대민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공공행정의 업무공백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군민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아동권익 대변 '옴부즈퍼슨' 위촉



나주시는 28일 시청 시장실에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옴부즈퍼슨 5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대리인'을 뜻하는 스웨덴어인 '옴부즈퍼슨' 제도는 유니세프(UNICEF)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10가지 원칙 중 9번째 항목인 '아동을 위한 독립적 대변인'에 근거를 둔다. 옴부즈퍼슨은 UN아동권리협약에 기반해 아동권리 보호 및 증진을 목표로 아동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

는 사안에 대한 개선방안을 행정기관에 제시하는 독립적 대변인이자 중재자 역할을 한다. 시는 이날 △김미정 나주교육지원청 장학사 △조용태 나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조준 동신대학교 교수 △유기용 전남중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장 △김재춘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전남아동보호센터장을 옴부즈퍼슨으로 위촉했다. 한편 나주시는 2021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목표로 지난해부터 △아동친화도시 기본계획 수립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업무협약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아동실태조사 용역 및 원탁토론회 개최 등을 추진해왔다.

기동취재본부

장성군 삼계면 LH 4차 공공임대주택 건설 "순항 중"

150세대 규모 올해 말 완공... 2021년부터 입주

장성군은 삼계면 사창리 일원에서 진행 중인 LH 4차 공공임대주택 건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27일 군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150세대 규모의 건축공사를 준공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입주를 시작할 계획이다.

삼계면 LH 4차 건설은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 사업은 그간 임대주택 공급에서 소외되어 온 지방 중소도시 및 읍·면 지역에 적합한 규모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장성 삼계

면 LH 4차 건설사업은 임대주택 사업의 주요 성공사례로 꼽히는 등 준공 전부터 크게 각광받고 있다"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6년 영천리 일대에 LH 1·2차 공공임대주택 786세대를 건립한 장성군은 이어서 LH 3·4차 사업 유치에 성공, 장성읍과 삼계면에 각각 150

세대의 임대주택을 건설을 시행 중에 있다. 올해 2월에는 LH 측과 5차 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LH 5차 사업이 마무리되면 총 1166세대의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서게 돼, 서민 주거환경의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동취재본부

곡성군 백세미, 인기몰이

곡성군 백세미가 날이 갈수록 치솟는 인기에 힘입어 전국 유명 백화점 판매망을 확대하고 있다. 현재 곡성 백세미는 전국 신세

계 백화점 13곳 중에 9곳에서 유통되고 있다. 백세미는 출시된 이래 3년 간 매년 완판현황을 이어가고 있는

곡성군의 대표 유기농 특화이다. 그동안 국회의장상,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상 등 각종 상을 휩쓸었으며, 올해는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에도 선정됐다. 백세미는 연초에 설을 맞아 양재동 하나로클럽을 방문한 대통

령 내외가 구입하며 유명세를 치르기도 했다. 곡성군과 석곡농협은 백세미를 전국적인 으뜸 쌀 브랜드로 키워간다는 계획이다.

곡성=김광휘 기자

'한우' 기술공감 일동, 한우농가에 물품기탁

구례군은 '한우' 기술공감 회원들이(운영장 고방구) 8월 28일 호우피해를 입은 한우농가에 2,750만원 상당의 물품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성금을 모금하여 한우사육에 필요한 물품인 배합사료, 톱밥, 사일리지, 환풍기 등을 호우피해 한우농가에 지원해 달라며 구례군에 전달했다. 더불어 수해복구가 조속히 완료돼 축산농가 등이 제민이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구례=박진호 기자

광주, 대한민국! **미래로**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광주에 투자하십시오**

- 친환경 자동차·에너지·문화산업 육성
- 에어가전 및 공기산업 클러스터 구축
- AI 중심 산업융합 집적화 단지 조성
- 풍부한 우수인력 및 연구개발 적극 지원

GWANGJU